

## 벤투 감독 '최정예 소집', 2차 예선부터 총력전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부터 최정예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29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서 9월에 열리는 조지아와의 평가전 및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 나설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6월 평가전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축구 대표팀은 오는 9월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돌

입한다. 앞서 진행된 2차 예선 조추첨 결과 한국은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등 네 팀과 H조에 배정됐다.

한국은 9월 10일 열리는 2차 예선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을 위한 여정에 돌입한다. 실전에 앞서 9월 5일에는 터키 이스탄불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등은 객관적인 전력상 한국보다는 아래로 평가받는 팀이다. 하지만 레바논과 북한 원정은 외적인 변수가 많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과거 한국이 약체에 간간히 발목이 잡히면서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정예로 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 명단의 면면을 보면 실험보다는 실전이 중요시됐던 지난 1월 아시안컵 명단과 비교해 봐도 전혀 전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유럽리그 진출 후 마수걸이 득점포를 쏘아 올린 벤투호 부동의 원톱 황의조(보르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최근 오스트리아리그를 맹폭하고 있는 황희찬(잘츠부르크)도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했던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이 새롭게 가세했다. 백승호(지로나) 이강인(발렌시아) 등 기대주들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들은 대표팀 베스트11에 포함되도 이상하지 않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이란을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백승호는 벤투호 3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난 5월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

인도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면 대표팀 전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여기에 벤투 감독은 체격이 외소한 아시아 국가 팀들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리그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장신 공격수 김신욱(상하이 선화·사진)을 선발하며 다양한 공격 카드를 구비했다.

## 미국 농구 대표팀, 월드컵 3연패 가능할까?

지난 31일 개막된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우승팀 예상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미국의 전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의 3연패가 좌절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터키, 체코, 일본과 함께 E조에 속했다. 미국의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 외엔 없다. 그런데 선수 구성을 보면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미국프로농구(NBA)를 호령하는 슈퍼스타들이 이번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 중 지난 시즌 NBA 올스타전에 나선 선수는 켄바 워커(보스턴)와 크리스 미들

턴(밀워키) 두 명밖에 없다. 역대 미국 대표팀 중 최악 체로 꼽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24일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94-98로 패하는 등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미국 대표팀을 이끄는 사령탑은 현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주장인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다. 샌안토니오 특유의 시스템 농구를 만들어내며 20년 넘게 샌안토니오를 NBA의 대표적인 강팀으로 만들어낸 그의 수완은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현 NBA 최강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사령탑 스티브 커 감독이 코치로 가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흔들리는 미국의 아성에 도전할 가장 유력한 팀으로는 세르비아가 꼽힌다. 현 FIBA 랭킹 4위인 세르비

아는 직전 대회였던 2014년 스페인 대회에서 미국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대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NBA에서 활약하는 센터들 중 어시스트 능력이 가장 뛰어난 니콜라 요키치(덴버)를 중심으로 슈팅력이 뛰어난 가드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와 포워드 네마냐 비엘리치(이상 새크라멘토), 그리고 221cm의 장신 센터 보반 마리아노비치(필라델피아)가 전력의 주축이다.

NBA에서 활약하는 요나스 발렌슈나스(멤피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인디애나), 두 트윈 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FIBA 랭킹 6위 리투아니아도 미국을 잡을 수 있는 팀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지난 시즌 NBA 최우수선수(MVP)로 꼽힌 야니스 아데토쿰보(밀워키)를 보유한 그리스 역시 북병으로 평가된다.

### 타운뉴스 신문/업소록

성공을 여는 타운뉴스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www.townnewsusa.com / E-mail : info@townnewsusa.com

